

01 현대자동차 회사상식

1. 회사개요

회사명	현대자동차(주)
설립일	1967년 12월 29일
상장일	1974년 6월 28일
대표이사	정의선, 장재훈, 이동석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업
자본금	1,488,993백만 원
자산총계	233,946,415백만 원
본점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2

2. 기업이념

(1) 경영철학(Management Philosophy)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 사회의 꿈을 실현한다.

(2) 비전(Vision)

자동차에서 삶의 동반자로,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

(3) 핵심가치(Core Values)

- ① 고객 최우선(Customer):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중심에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는 고객 감동의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
- ② 도전적 실행(Challenge):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 ③ 소통과 협력(Collaboration): 타 부문 및 협력사에 대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눔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 ④ 인재존중(People): 우리 조직의 미래가 각 구성원들의 마음가짐과 역량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인재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간다.
- ⑤ 글로벌 지향(Globality): 문화와 관행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를 지향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존경 받는 개인과 조직이 된다.

3. 국내/국외 공장

(I) 국내 공장

① 울산공장

- ㉠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부지, 5만 톤 급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공장이다.
- ㉡ 국내 최초 독자모델, 국내 최초 독자기술 차량생산, 세계 10대 엔진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의 살아 있는 역사가 있는 공장이다.
- ㉢ 환경친화시설 구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계 최초 수소전기 자동차 양산 등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공장이다.
- ㉣ 1968년 설립된 공장으로 근무인원은 32,000명이고, 공장면적은 축구장의 670배인 5,000,000m²이다.
- ㉤ 생산차종은 승용차 7종, SUV/MPV 8종, 소형상용차 1종 등 현대자동차 대부분의 모델을 생산한다.
- ㉥ 5개의 완성차 공장(엔진 및 변속기 공장, 수출전용부두)을 포함하고 있고, 하루 평균 6,000대, 연간 1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 ㉦ 공장 내부는 문화회관(홍보관),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엔진/변속기 공장, 도로주행 시험장, 아산로, 수출부두로 구성되어 있다.

② 아산공장

- ㉠ 환경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생산라인을 구축한 완전 자립형 첨단 자동차 친환경 생산기지이다.
- ㉡ 국내 개발 로봇, 무인 운반차량 및 레이저 유도 차량 등 다양한 첨단 설비를 적용한 해외 첨단공장의 산실이다.
- ㉢ 중대형 베스트셀러 모델인 쏘나타, 그랜저 차종을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핵심 생산 시설을 갖췄으며,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생산도 이루어지는 공장이다.
- ㉣ 공장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로 10MW의 국내 최대 지붕 발전량으로 연간 5,600톤의 CO₂를 감축한다.
- ㉤ 1996년 완공된 공장으로 근무인원은 4,000명이고, 공장면적은 축구장 243배인 1,830,000m²이다.
- ㉥ 연간 완성차는 30만 대, 연간 엔진 생산은 60만 대이다.
- ㉦ 공장 내부는 홍보관, 프레스공장, 차체조립공장, 도장공장, 의장공장, 엔진/소재공장, 도로주행시험장, 환경친화시설, 태양광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③ 전주공장

- ㉠ 승용을 제외한 트럭, 특장차, 중대형 버스 등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상용차 공장이다.
- ㉡ 엔진공장, 소재공장, 트럭/버스 생산 공장, 주행시험장, 출고센터를 완비하여 개발부터 생산, 출고까지 가능한 독립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㉔ CNG 하이브리드 버스, 수소연료전지 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를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
- ㉕ 1995년 완공된 공장으로 근무인원은 6,100명이고, 공장면적은 축구장 172배인 1,300,000m²이다.
- ㉖ 생산차종은 버스 7종, 트럭 3종, 특수차 7종이고, 연간 완성차는 103,000대, 연간 엔진 생산은 85,000대이다.
- ㉗ 각종 첨단 생산시설과 차체용접용 로봇을 도입하는 등 상용차 공장으로서 높은 자동화율을 실현한 하이테크 자동차 공장이다.
- ㉘ 공장 내부는 버스공장, 트럭 1공장, 트럭 2공장, 트럭 3공장, 소재공장, 엔진공장, 홍보관, 주행시험장, 출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2) 국외 공장

① 엘라배마공장

- ㉑ 현대자동차 해외 공장의 표준 모델 생산
- ㉒ Harbor Report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언론 선정 최고의 공장으로 선정
- ㉓ 엔진 및 조립 최우수 공장으로 5년 연속 선정

② 중국공장

- ㉑ 3개 공장의 연 생산량 1,050,000대
- ㉒ 총 3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제4공장과 제5공장 설립 예정
- ㉓ 2014년 베르나(한국 모델명은 엑센트)로 중국 내 소형차 최다 판매 기록

③ 인도공장

- ㉑ 인도 등 신흥 시장을 위한 제조 기지
- ㉒ 플렉서블 엔진 공장 운영
- ㉓ EON, i10, i20 등 전략 차량 생산

④ 체코공장

- ㉑ i시리즈 등 유럽 시장에 맞는 전략적인 차종 생산
- ㉒ 2014 체코 국가 품질상 '엑셀런스상' 2년 연속 수상

⑤ 튀르키예공장

- ㉑ 현대자동차 최초의 해외 공장
- ㉒ 2014년 총 10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

⑥ 러시아공장

- ㉑ 현지 시장에 맞는 솔라리스(한국 모델명은 엑센트) 등 전략적인 모델 생산
- ㉒ 2014년 러시아 국가 품질상 수상

⑦ 브라질공장

- ㉠ 상파울루에 위치
- ㉡ HB20 등 현지 시장에 맞는 전략적인 차종 생산
- ㉢ 2014 브라질 차량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

4. 공유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1) 비전

Progress for Humanity

(2) 미션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한 사회 임팩트 확산과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구축

(3) CSV 이니셔티브

Hyundai Continue

(4) 중점 영역 및 추진 방향

	Continue earth	Continue mobility	Continue hope
중점 영역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노력을 계속한다.
추진 방향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 기후 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이동약자/소외지역 아동 지원, 교통안전기술 지원, 미래 모빌리티 연계 활동	미래세대 교육, 성장 지원, 인재 육성 활동

5. 환경(Environmental)

(1) 탄소중립

현대자동차의 비전인 ‘Progress for Humanity’에는 이동의 편의를 위한 발전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진도 포함된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을 수립하였고,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generation Platform),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핵심으로 전동화 역량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 ①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방법론: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표준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라 전사 Scope 1, Scope 2 배출량을 측정·검증하고 있다. 또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과 협력을 바탕으로 Scope 3를 측정·검증하고 있다. 해당 Scope 1, Scope 2, Scope 3 데이터와 IRENA, EIA, IEA, BP의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 ‘2°C 이하 시나리오’ 및 ‘1.5°C 시나리오’ 분석을 종합하여 2045년 탄소중립까지 2030년, 2035년, 2040년 달성해야 할 탄소감축 경로(Path)를 설정하였다.
- ②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영역
- ㉠ 전동화 전환: 탄소 감축을 넘어 탄소 제로화를 추진하기 위해 2035년 유럽 시장, 2040년 내로 주요시장 모든 판매 차량의 100% 전동화 전환 달성을 목표로 한다. 버스와 대형 트럭 등 상용차 역시 2028년까지 전 차종 전동화 라인업을 구축하고, 2035년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타 지역까지 100%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이후, 수소전기차 라인업도 1종에서 3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넥쏘 페이스리프트, 스타리아급 FCEV모델, 2025년 이후 대형 SUV급 FCEV 모델을 검토 중이다.
 - ㉡ 사업장 탄소중립: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저감을 위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고효율 모터, 인버터 적용 등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와 수소 에너지 활용을 통해 2045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는 중이다. 특히, 2045년 100% 재생에너지 충당을 목표로 한 RE100 선언을 ‘The Climate Group’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인도생산 법인은 태양광 자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풍력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체 전기 에너지 사용량의 약 35.5%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고,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에는 3.2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 ㉢ 공급망 탄소중립 유도 및 지원: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품질 개선, 기술력 향상 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탄소감축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이행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 ㉣ 사회적 탄소 감축: LNG 등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폐차 부품으로부터 회수된 폐자원,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소재를 적용하는 등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 수소사업 시너지 창출: RE100 이행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그린수소 활용 및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린수소는 현대자동차 사업장 운영을 위한 수소 발전설비 및 공정의 LNG 대체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 ③ 수소생태계 조성
- ㉠ 그린수소 활용: 그린수소는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수소로, 태양광 또는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로 불린다. 현대자동차는 그린수소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전기차의 제조원가와 수소 생산 비용을 대폭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수소 모빌리티 확대: 2021년 9월, ‘하이드로젠 웨이브(Hydrogen Wave)’를 통해 누구에게나, 어떤 것에도, 어디에서나 늘 수소가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2040 수소사회 비전(Hydrogen for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무인 운송 시스템인 ‘트레일러 드론’부터 ‘재난 구호 차량’, ‘수소 고성능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선보였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도 제시하였다.
- ㉡ 수소 충전 인프라(LPG 리포머 공동 개발): 현대자동차는 국내 수소충전 인프라 및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보다 견고한 수소탱크 생산 및 차량 경량화 관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석유자원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리포머 기술을 접목하는 등 LPG 리포머의 개발 및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양사는 2022년 6월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한 LPG 리포머는 LPG 충전소를 활용하여 2023년에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2) 재활용 생태계 조성

현대자동차는 폐차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식에 입각하여, 폐차의 재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폐차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차량을 판매하는 국가 및 지역별 폐차 회수·처리 규제를 준수하며, 자체적으로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력을 통해 폐차 회수·처리 및 재활용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차량 개발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및 설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품 및 소재를 재활용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차량에 적용하는 등 선형(생산 - 소비 - 폐기) 방식에서 순환형(생산 - 소비 - 재생) 사업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3) 유해물질 관리

현대자동차는 모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품 내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도 국내 법규 또는 국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알맞은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2002년 12월 당사 자체 유해물질 관리기준(4대 중금속)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유럽연합(EU) REACH 등 각국의 유해물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과 근로자,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 기술 관련 내용

(1) 로보틱스

로보틱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5대 신사업 중 하나이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신체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무진동 차량처럼 정숙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면서도 정보 제공·안내·배송 등 비대면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로봇,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3대 로봇 분야가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를 목표로 가지고 로보틱스 분야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인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2)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적은 공해 유발과 탁월한 연비 효율을 가진 친환경 자동차이다. 쏘나타의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이 탄소를 79g/km(국내 기준) 배출하여 가솔린 모델(131g/km)에 비해 탄소를 39% 감축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대형 SUV와 소형 승용차급을 제외하고 전 차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SUV 세그먼트는 세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아 2019년 코나 하이브리드, 2020년 투싼과 쏘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였다.

(3) 전기차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달리는 모든 친환경차를 뜻한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전지차 등이 모두 포함되나, 국내에서는 주로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달리는 배터리 전기차(BEV)를 일컫는다. 배터리 전기차는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차로, 최근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아이오닉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을 시작하였다. 2018년 대중 브랜드 최초 SUV 전기차 코나EV와 2021년 최초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기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하는 등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G80 EV와 GV60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 출시도 본격화하고 있다.

(4) 수소전기차

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오직 에너지와 물만 발생시키며, 운행 중 대기에 있는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투싼ix로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차세대 연료 전지시스템을 탑재한 넥쏘 수소전기차를 출시하였다. 넥쏘는 내연기관 차량에 버금가는 성능과 3단계 공기 정화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차량으로, 1회 충전에 609km 주행이 가능하다.

(5) 자율주행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HDA)을 비롯해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자동 긴급제동시스템(AEB),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S) 등이 구현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시스템이 운전에 관여하는 정도와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 비자동화부터 완전 자동화까지 점진적인 단계로 구분된다. 2016년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분류한 레벨 0~5(총 6단계)가 글로벌 기준으로 통하고 있으며, 레벨 0은 비자동화,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단계이다.

(6) 스마트팩토리

제품을 조립, 포장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공장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힌다. 스마트팩토리는 모든 설비와 장치가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는 공장 곳곳에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카메라를 부착시켜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에 저장해 분석하는데,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서 불량품이 발생하였는지, 이상 징후가 보이는 설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인공지능이 파악하여 전체적인 공정을 제어한다.

(7)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AAM(Advanced Air Mobility)은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카테고리다.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정의에 따르면 ‘항공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항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소 사이에 사람과 화물을 이동하는 항공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도심 안에서의 이동을 제공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와 도심과 도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간 항공 모빌리티(RAM: Regional Air Mobility)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친환경 콘셉트를 더하여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AAM을 정의 내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AAM 시스템과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이로운 친환경 기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AAM은 비대화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자동차와 항공기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미래 도심 이동수단이 될 AAM 시장 선점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2022년 1월 기존의 UAM사업부를 AAM본부로 격상하고 미래항공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UAM 독립법인 슈퍼널(Supernal)을 통해 2028년 미국에서 UAM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2030년 이후 RAM 기체를 상용화할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보잉, 롤스로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AAM 시장 개척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7. 주요 자동차 사양(지능형 안전기술)

(1) 충돌 방지

- ① 전방 충돌방지 보조: 선행 차량 또는 전방의 보행자와 충돌 위험 시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생시키며, 필요 시 제동을 통하여 충돌방지를 보조한다.
- ②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조작할 때,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준다. 평행 주차상태에서 전진 출차 중,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준다.

(2) 고속도로 주행보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곡선 로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준다.

(3)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하여, 주행 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주행 안전 기능이다.

(4)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전방 차량과의 충돌/차량의 차선 이탈/후측방 충돌 위험 시, 운전자 주의 경고 시 스티어링에 진동을 주어 경고한다.

(5)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주고, 앞 차의 움직임에 맞춰 차간거리를 조절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6) 운전자 주의경고

주행 중 운전 패턴, 주행 시간 등을 판단하여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알려주고,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휴식을 권유하여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7) 안전 하차

- ① 안전 하차 경고: 정차 후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도어를 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준다.
- ② 안전 하차 보조: 정차 후 하차를 위해 도어를 열 때 후측방 접근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하고,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전자식 차일드 락을 잠금 상태로 유지한다.

8. 자동차 제조공정 및 정비/서비스 프로그램

(1) 자동차 제조공정

- ① 프레스(Stamping): 상하운동을 하는 프레스 기계에 금형 장착 후 고압으로 철판을 변형시켜 차량 총중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레임, 바디 패널 등을 생산한다.
- ② 차체조립(Welding): 패널들을 조립, 용접하여 차의 모양을 만드는 공정으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며 최초로 차체 스타일 형성 및 튼튼한 조립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
- ③ 도장(Paint): 부식으로부터 소재 보호, 색상으로 외관 향상, 다른 차량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대한 내구성 개선 공정이다.
- ④ 의장(Assembly): 차체에 내장, 편의사양 등 실내외 부품 장착 후 엔진, 트랜스미션, 차축 등 기계부품 조립 및 전장부품과 배선, 배관 작업으로 차량이 완성된다.
- ⑤ 검수(Inspection): 완성된 차량의 휠 얼라인먼트 조정과 브레이크 및 배기가스 테스트 등 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하자 발견 시 수정 작업을 하여 출고 전 품질 관리를 한다.

(2) 정비/서비스 프로그램

- ① 블루 기본 점검: 차량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승용차는 8년 8회, 상용차는 3년간 총 7회 무상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② 바디케어 서비스: 신차 출고일로부터 최대 1년(또는 주행거리 20,000km) 동안 단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외장 손상에 대해 판금, 도장, 교체 등을 보장해주는 현대자동차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이다.
- ③ 워런티 플러스: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무상 보증기간 만료 후, 추가 계약 기간/주행거리 동안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이다.
- ④ 긴급출동 서비스: 노상에서 차량고장으로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출동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해주는 서비스이다.
- ⑤ 찾아가는 비포 서비스: 아파트 단지 관공서, 기업체 등 고객이 요청한 장소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 ⑥ 홈투홈 서비스: 직접 정비업체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고, 수리 후 다시 인계해주는 서비스이다.
- ⑦ 과잉정비 예방 프로그램: 블루핸즈에서 과잉정비 의심 수리 발생 시 외부 보험사 조사 결과에 따라 과청구 금액의 100~1,000%(최대 1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하는 제도이다.
- ⑧ 고객 차량 지원 서비스: 보증수리 입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02 기아 회사상식

1. 회사개요

회사명	기아(주)
설립일	1944년 12월 11일
상장일	1973년 7월 21일
대표이사	송호성, 최준영
대표업종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자본금	2,139,317백만 원
자산총계	120,426,413백만 원
본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양재동)

2. 기아 경영체계

기아는 1944년 설립 이후 지난 78년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2021년부터는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과 로고를 변경하며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비전을 선포, 자동차 제조 회사를 넘어 모빌리티 브랜드로 도약 중이다. 이에 기아는 2027년까지 전기차 풀라인업 구축을 통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주도하며,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아는 Planet, People, Profit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 ‘Plan S’ 실현과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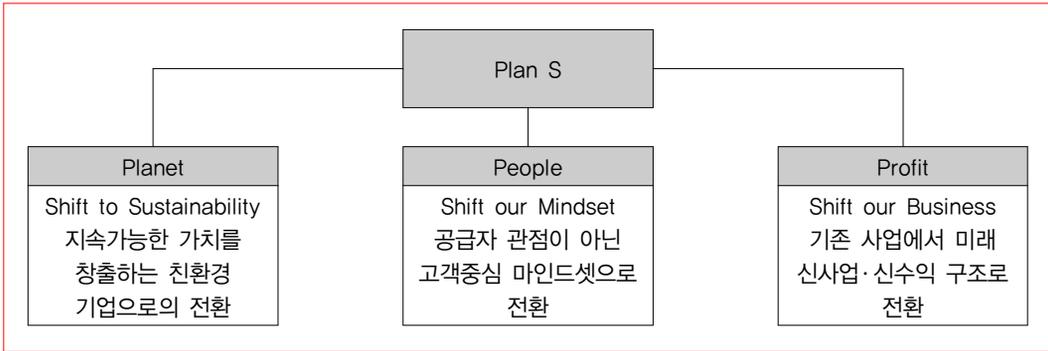
(1) 브랜드 목적

Movement inspires Ideas
우리는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는 공간과 시간을 만든다.

(2) 기업비전

Sustainable Mobility Solution Provider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3) 기업전략



3.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1) ESG 추진 로드맵

By 2021년	By 2025년	By 2030년
체계구축 국내외 평가/규제 대응	내재화 및 가치창출 전사전략/밸류체인 연계 강화	선도기업 도약 Best Practice 구축

(2) ESG 개선과제

- ①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 밸류체인별 감축 목표 수립 및 전략과제 추진
- ② 사업장 탄소 저감 추진: RE100 달성계획 구체화 /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③ 안전 시스템 강화: 통합 안전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국내외 전 사업장 동일 규격(ISO) 인증 획득
- ④ 공급망 ESG 체계 정립: 글로벌 1차 협력사 대상 ESG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⑤ 임직원 인권보호 강화: 전 사업장 대상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시 및 취약 영역 개선 추진
- ⑥ 이사회 투명성 개선: 이사회 평가 시행 및 운영 개선 / 지배구조 공시 강화
- ⑦ 윤리경영 관리 강화: 임직원 교육 강화(직장윤리, 반부패 등), 비윤리행위 제보건수 공시

(3) ESG 비전

영감을 주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Sustainable Movement for an Inspiring Future

(4) ESG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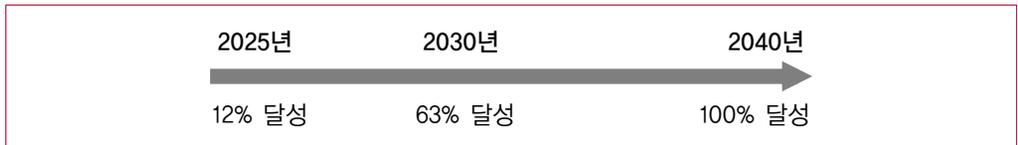
Cleaner & Circular	지구를 위한 친환경/순환경제 선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생 및 재활용 등의 자원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
Safe & Satisfying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사회 구축 임직원, 고객, 파트너, 지역사회 모두에게 안전뿐만 아니라 행복과 만족까지 전달하는 동반자
Transparent & Trustworthy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획득

4. 기아의 친환경/순환경제

(1) 2040 글로벌 RE100 달성

- ① 기아의 '2045 탄소중립' 선언: 204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97% 감축하며, 궁극적으로는 상쇄 방안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의 공급, 생산, 사용, 물류,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의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선언
- ② 2040년까지 생산 기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 ㉠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조환경부터 친환경적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 ㉡ 2022년 4월에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에 가입했으며, RE100 달성을 위해 생산기지 내 모든 전력을 2030년까지 63%,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 해외 생산거점인 Autoland 슬로바키아가 2019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 가동되고 있으며, 다른 생산거점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진행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사용량 증가가 기대된다.

③ RE100 달성 로드맵



(2) 전동화 전환을 통한 '사용' 단계 탄소 감축

기아는 우수한 EV 제품군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내 및 글로벌 EV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연기관 차량 대비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EV 차량의 판매량과 비중을 꾸준히 늘려 나갈 계획이다.

(3)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수행

- ① 전과정평가(LCA)를 통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전략 수립: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은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 이외에도 원소재 채취, 부품 제작, 차량 조립, 에너지원의 생산, 정비, 폐기, 그리고 각 단계 사이의 수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 기아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영향을 정량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각 단계별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탄소 저감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EV9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양산되는 모든 신차의 전과정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 ② 대형 SUV 최초로 e-GMP 적용한 EV9의 전과정평가 결과: 2023년 4월 출시된 EV9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최초의 대형 SUV이다. 전과정평가 결과, 대용량(99.8 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함에 따라 원소재 채취 단계에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동화 차량의 특성상 운행 단계에서의 직접 탄소배출량은 '0'이며, 에너지원(전기)의 생산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 과정 탄소배출량이 23% 저감됐다.

(4) 갯벌 식생복원을 통한 자연자본 보호

해양수산부는 해양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갯벌의 탄소 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아는 해양수산부의 유일한 민간 기업 파트너로 협력하여 갯벌 식생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 기아와 해양수산부의 '갯벌 식생복원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기아는 식생복원 이후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탄소 흡수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한 연구결과를 국제 사회에 발표하여, 국내 갯벌이 가진 무한한 생태적 잠재력과 가치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알리고자 한다.

(5) 순환경제 선도를 위한 폐제품 재활용 생태계 구축

- ① EV 폐차 및 폐배터리 순환경제체계 마련: 기아는 EV 폐차 및 폐배터리 회수 단계에서의 재활용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V 차량의 친환경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폐차 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량해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재활용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용률을 향상시킴으로써 2024년까지 법정 기준인 95%의 폐차 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② 폐배터리 재사용 확대를 위한 협업: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순환 시스템 구축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6월, 기아는 독일 철도물류 회사인 도이치 반(Deutsche Bahn)의 자회사이자 폐배터리 재사용 스타트업인 앙코르(Encore)와 폐배터리 납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명을 다한 쏘울 EV(PS)의 배터리를 앙코르에 공급하게 되었으며, 납품된 배터리는 배터리 팩 테스트를 거쳐 재활용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부품으로 사용하게 된다.

(6)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 ① Action 1-Leather-free : 기아는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죽 사용을 완전 중단하고자 하며, 대신 옥수수, 유칼립투스 등의 바이오 소재가 추가된 바이오 PU(Bio Polyurethane)를 사용할 계획이다. 바이오 PU는 가죽과 동일한 느낌을 구현하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하며, 탄소 배출량과 독성 화학물질도 줄일 수 있다.
- ② Action 2-10 Must have items : 기아의 모든 신규 모델에 적용될 10가지 지속가능한 소재를 일컫는다. 바이오 PU, 재생 PET 패브릭, BTXfree 페인트 등은 기아 제품의 지속가능성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 | |
|----------------------|----------------------------------|
| •PP+Bio PE plastic | •PCM ¹ plastic |
| •Bio PU | •Bio PU foam |
| •Bio paint | •BTX free paint |
| •Recycled PET fabric | •Recycled PET fishing net carpet |
| •Recycled PET yarns | •Recycled PET felt |

- ③ Action 3-BIO Fabrication : 기아는 선행 연구의 일환으로 자사의 소재를 바이오 가공하고자 한다. 버섯 뿌리에서 발견되는 균사체로 가죽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7)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

- ①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추진 체계 구축 : 기아는 2%인 완성차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목표의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확대 적용 TFT 운영, 폐차 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폐차 부품 플라스틱 회수 등 관련 기술 연구개발과 구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 적용 확대 로드맵에 따른 실행 과제 도출, 관련 부문 협업 논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재활용 플라스틱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전사적 협업 체계도 마련되었다.
- ②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 현대차-기아 CTO 기초소재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연간 4만 4,000톤 수준으로 발생하는 폐어망의 재활용 소재 및 부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자원을 활용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선도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동원산업과 참치 어획용 폐어망을 자동차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 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8) 오션클린업

- ① 기아와 오션클린업의 파트너십 체결 : 2022년 4월 기아는 오션클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오션클린업은 강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차단하는 방법과 이미 바다에 축적된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양 플라스틱 및 쓰레기 제거 활동을 하고, 이때 오션클린업이 자체 개발한 정화 시스템이 사용된다. 오션클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40년까지 떠다니는 해양 플라스틱의 90%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오션클린업이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기아가 차량에 용품/부품으로 재자원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② 기아와 오션클린업, 공동의 미션과 비전

㉠ 공동의 미션

우리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일원으로서 플라스틱 없는 바다를 위한 여정을 함께 한다

㉡ 공동의 비전

우리는 순환하는 밸류체인을 위해 노력하며, 수거한 플라스틱이 자연환경에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자원을 제공할 방법을 찾는다.

5. 기아가 추구하는 사회

(1) 기아의 가치와 행동

기아는 고객 중심, 사람 중심의 문화를 조직문화의 지향점으로 삼고, ‘기아의 가치와 행동(Kia Values & Behaviors)’을 제정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개인의 배경,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성공이나 일시적 성과가 아닌 동료, 고객, 세상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동료, 고객,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명확하고 실천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함께, 더 멀리 나아갑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생각에 건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응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책임을 집니다.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매일 배우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대담하게 현상에 도전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추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는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단순하게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우리의 생각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2) 임직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책과 기술

- ① 안전환경방침과 로드맵, 활동을 통한 사업장 안전환경 고도화: 기아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안전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한다’는 미션하에, 안전환경 방침의 비전 및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준수하고 있다. 글로벌 전 사업장의 안전환경체계 통합 및 2025년까지 안전환경 수준 4 달성을 목표로 하며, 모든 임직원들이 이를 위해 안전환경 관련 법규 준수와 안전환경 리스크 최소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안전이 내재화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023년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선포식을 통해 ‘2023년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문’을 공개하는 한편, ‘기아 10대 안전수칙’ 해설서를 배포했다.
- ②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 기아는 임직원들이 업무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첨단의 스마트 안전 기술이 장착된 로봇을 활용한다. 순찰 로봇 스팟(Spot),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사람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 ㉠ 순찰 로봇 스팟(Spot):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의 스팟(Spot)은 산업용 점검 로봇(Industrial Inspection Robot)으로서 고온, 흑한 등 극한의 환경이나 사고 발생 지역, 방사능 오염 지역 등의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Data Keeper’, ‘Moving IoT’라는 별명답게 향후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 여러 응용 기술 또한 함께 개발되고 있다.
 - ㉡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 아틀라스(Atlas)는 다목적 휴머노이드 로봇이자 현대차그룹 초격차 로봇기술의 집약체이다. 유압 동력 관절을 통해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여 이동할 수 있고, 감지 센서를 통해 다양한 지형에서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직은 선행 연구 목적으로 개발 중이지만 미래에는 그리퍼 기술, 자세 제어, 문제해결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인간과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 ①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건강한 공급망 생태계 고도화: 기아는 함께 일하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3대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글로벌 경쟁력 육성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현대차그룹 1,193억 원 출연
 - 중소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19~2022년 4년간 총 200억 원 출연, 803개 사 지원
 - ㉡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원자재 가격 연동제 운영: 원자재 변동분을 분기 단위로 부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
 -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운영

㉔ **동반성장 문화 정착**

- 상생협력 5스타 제도 운영: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 후 업체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공정거래 협약 운영
- 투명구매실천센터 운영: 제도개선 건의, 투명/윤리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개선 및 조치

- ②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사 ESG 지원 및 수준 진단**: 기아는 협력사의 ESG 실천을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 수시로 ESG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협력사의 ESG 수준을 관리한다.

(4) 고객경험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① **고객접점 서비스 고도화**: 고객이 기아라는 브랜드를 경험하며 겪게 되는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시각화한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모든 고객접점에 공유하여 각 프로세스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고객경험(CX) 진단을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고객 직원 대상으로 적극적 고객응대 캠페인과 공감 CS교육, 1:1이미지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고객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 ② **고객 중심 경영의 실천과 성과**: 기아고객센터와 기아커넥트센터를 통해 접수된 고객의 의견은 관련 부문에 전달되며, 특히 고객불만 중 중점관리 9개 영역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만 확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③ **친환경 경험 공간으로 리뉴얼된 기아 스토어**
- ④ **대고객 정비 서비스 강화**

(5)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 ① **쾌적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EV 상품 전략**: 기아는 향후 더욱 크게 증가할 EV 차량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경험함으로써, 최상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도록 EV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특화 전략을 구축하였다.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성능(Performance), 디자인(Design) 4개 부문의 특화 전략에 따라, 기아는 EV 상품 전략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전동화 리딩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
- ② **고객 니즈 맞춤형 모빌리티, PBV**: 기아는 목적 기반 차량인 PBV(Purpose-built Vehicle)를 통해 미래 자동차 이용 고객의 니즈와 모빌리티 시장의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아 PBV는 고객지향 특화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이 상품 구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사양을 제안하고, 이를 개발 과정에 반영한다.
- ③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 ‘위블 비즈’는 EV 차량과 관련 웹/앱 솔루션, 차량 유지관리 및 충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기아의 기업 또는 기관 고객 대상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 ④ 기아 프리미엄 카 구독형 서비스 ‘기아플렉스’: ‘기아플렉스’는 고객이 원하는 기아의 프리미엄 라인업 풀옵션 차량을 구독하여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시와 장소에 맞춰 차량을 배송 및 반송하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6) 사회공헌 활동

① 사회공헌 가치체계

사회공헌 미션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		
핵심영역	친환경	모빌리티	챌린지
추구가치	기후변화 대응·생태 보호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	미래세대의 성장·자립

- ② 초록여행: 장애인들의 여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다. 2022년 12월 기준 ‘초록여행’의 누적 이용 횟수는 15,561회, 이용 인원은 75,264명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고 휠체어 수납까지 가능하도록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조된 카니발 차량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 기사와 경비, 유류 등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주년을 맞아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단거리 이동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③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 GLP):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도전, 성장,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 기아가 10년간 전 세계 9개국 12개 거점을 대상으로 최소 3년의 장기적 지원을 거친 후, 해당 정부에 공식 이양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아프리카 8개국에 초·중·고등학교, 보건소, 직업훈련학교 등 GLP센터 14개를 건립하였고, 학부모 및 마을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노하우를 전수했다. 모바일 클리닉·모바일 스쿨·스쿨버스 등 차량 25대도 함께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 곳곳의 주민 76만 3,321명에게 필수 보건의로 및 교육·직업훈련 등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했다.
 - ㉠ GLP 10년 총 사업비: 143.5억 원
 - ㉡ 지역: 아프리카 8개국 11개 사업장 지원(가나,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 ㉢ 인프라: 교육·의료·직업훈련 시설 14개 건립, 이동 차량 25대 지원
 - ㉣ 성과: 10년간 창출된 사회적 성과 약 371.6억 원

6. 사업장 안내

(1) 본사

- ① 기아 본사
- ② 국내사업본부(Kia360)

(2) 연구소

- ① 남양연구소
- ② 환경기술연구소

(3) AutoLand

- ① AutoLand 광명: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 기아의 모태공장 일괄 생산 체제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 종합 자동차 공장이다.
 - ㉠ 면적: 17만 평
 - ㉡ 연간 생산능력: 31.3만 대
 - ㉢ 생산 차종: 카니발, K9, 스텡어
- ② AutoLand 화성: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 생산기지, 최신의 첨단설비와 자동화 시설을 갖춘 종합 자동차 생산 공장이다.
 - ㉠ 면적: 100만 평
 - ㉡ 연간 생산능력: 53.1만 대
 - ㉢ 생산 차종: K3, 니로, K5, K7, 쏘렌토, 모하비, EV6
- ③ AutoLand 광주: 호남 자동차 산업의 요람, 수출 전략 기지이다.
 - ㉠ 면적: 36만 평
 - ㉡ 연간 생산능력: 47.7만 대
 - ㉢ 생산 차종: 스포티지, 봉고트럭, 대형버스, 군용차, 셀토스

7. 공장별 일반 현황

(1) 기아 한국 공장

- ① 생산량: 1,591,000대
- ② K3,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을 생산

(2) 기아 중국 공장

- ① 생산량: 890,000대
- ② K3, K5, 셀토스, 스토닉 생산

(3) 기아 멕시코 공장

- ① 생산량: 400,000대
- ② 프라이드, K3 생산

(4) 기아 미국 공장

- ① 생산량: 340,000대
- ②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스포티지 생산

(5) 기아 슬로바키아 공장

- ① 생산량: 330,000대
- ② 스포티지, 씨드, 벤가 생산

8. 기아 Line-up

승용차	모닝 레이 리오(Rio) 페가스(Pegas) K3 씨드(Ceed) K5 스타이어 K8 K9
RV(Recreational Vehicle)	KX1 쏘넷(Sonet) 스토닉 쏘울 KX3 셀토스 스포티지 엑씨드(Xceed) 카렌스 쏘렌토 모하비 카니발 텔루라이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K5 K8 니로 쏘렌토 스포티지 니로 플러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3 씨드(Ceed) 니로 쏘렌토 엑씨드(Xceed) 스포티지 니로 플러스 [전기차] K3 쏘울 니로 EV6 봉고3 EV9 니로 플러스
상용차	봉고3(K2500/K2700) 그랜버드
CKD(Complete knock Down)	자동차 부품품(엔진 등)

9. 기아 대표모델

(1) EV6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는 기존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기술 적용과 차량 제원 최적화로 미래 전기차의 비전을 제시했고, 2022년 유럽 올해의 차, 2022년 레드닷어워드, 2022년 대한민국 올해의 차를 수상하였다.

- ① 18분 초고속 충전: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 ② I-PEDAL 모드: 차세대 일체형 PE(Power Electric) 시스템을 이용하여 긴 주행거리를 구현하고, 저중심 설계 및 후륜 구동 기반으로 뛰어난 주행성능을 제공한다. 가속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i-PEDAL 모드를 적용했다.
- ③ 단 한번의 충전으로 475km 주행: EV6의 77.4kWh 대용량 배터리를 통해 충전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
- ④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직각주차 및 평행 주차, 출차 기능 포함):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주차 및 출차가 가능하다. 또한 탑승 후 조작 시에는 조향, 차속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주차 및 출차를 도와준다.
- 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와이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구현했다. 또한, 원격 제어 및 안전 보안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첨단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아 커넥트’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 EV9

EV9은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최상위에 위치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이용자들이 자유로우면서도 안전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도입되었다.

- ① 혁신적인 e-GMP와 4세대 기술: EV9의 실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설계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 ②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HDP): 새로운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EV9의 레벨3 고속도로 부분 자율주행을 실현했다.
- ③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지점/대리점 방문 없이도 디지털 상품이나 사양을 편리하게 추가 구매할 수 있다.
- ④ 특허 출원 중인 세계 최초 B필러 신규 연결 구조 기술 적용과 특별한 차체 설계를 통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 ⑤ 폐기물 업사이클링 소재 적용: 기아는 EV9을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축에 기여하고자, 콘셉트 카 제작 단계부터 바다에서 건진 폐어망이나 재활용 폐플라스틱 병, 비건 가죽 등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하였다. 실제로 양산된 EV9 또한 이러한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에 따른 다양한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EV9에 사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부품의 중량은 약 34kg에 달한다.